

응의 원형 심리학에 대한 과정철학적 고찰: 원형의 기원을 중심으로

주 재 완 (선문대)

【한글요약】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은 응의 원형 심리학에서 말하는 원형의 기원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과정철학적 설명은 원형의 기원에 대해 응 자신의 설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보다 그것을 포섭 보완하면서 확대시킨다. 과정철학과 응의 원형 심리학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두뇌를 구분하지만 동질의 두 실재로 봄으로써 함께 존재론 차원에서 근대적 세계관을 넘어선다. 그러나 감각주의에서 있는 응은 마음과 두뇌 그리고 마음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과정철학은 감각주의 인식론에 없는 비감각적 지각 개념으로 이 부분을 보충하여 원형 형성의 메커니즘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정철학이 원형의 기원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응이 말한 집단무의식과 원형이라는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 논쟁이 있으므로 과정철학과 원형 심리학의 관계가 마치 이론과 검증의 관계인 것처럼 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사상은 각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으며 또 서로 배울 수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과정철학에서 평소 잘 드러나지 않던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과 원격작용 개념이 재조명을 받는 것은 큰 수확이다.

[주요어] 칼 융, 원형 심리학, 화이트헤드, 과정철학

1. 시작하는 글

프로이드와 다르게 융(C. G. Jung)은 인간이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무의식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더 깊은 집단 무의식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무의식은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획득된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험 속에서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들과 고통스런 관념들은 개인적 무의식을 형성한다. 반면 집단무의식은 개인적 경험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융은 집단무의식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 내용들을 원형이라고 불렀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부터 착안한 원형 개념은 내용이 없는 형식 즉 인간의 사고, 인식, 행동의 어떤 유형의 가능성이란 의미를 갖는다. 융이 제시한 대표적인 원형의 예로서 가면 원형, 그림자 원형,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 태모 원형, 어린이 원형, 현자 원형, 자기 원형 등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즉각 뒤따르는 질문은 만일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획득하지 않은 요소를 무의식의 심층에 가지고 있다면, 그 요소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이다. 이 질문이 합리적으로 답변되지 않으면 융의 원형 이론은 설득력이 약해지며 신비한 가설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스(Andrew Samuels)가 지적하듯이, 융은 결국 이 질문에 일관되고 충분히 합리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¹⁾ 이 질문에 대한 융의 주된 대답은 오랜 과거의 기간 동

1) Andrew Samuels, Jung and Post-Jungia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26.

안 수없이 반복된 경험이 후대의 인간들에게 공통된 원형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융은 과거의 반복된 경험이 후대 인간의 무의식에 어떤 강력한 경향성을 심어주는 메카니즘을 설명하지는 못했다.²⁾

그런데 일부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융 자신이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한 원형의 기원에 대해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이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은 융이 말한 원형과 집단무의식과 같은 현상을 예견하며, 예견된 그 현상이 융에 의해 경험적으로 관찰된 것 같다고 이해한다. 즉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은 융의 원형 심리학(Archetypal Psychology)³⁾에 의해 경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융의 원형 심리학은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으로부터 철학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핀(David Ray Griffin)은 만일 화이트헤드가 말한 비감각적 지각이라는 것이 옳다면, 융이 말한 원형으로 구성된 집단무의식과 같은 심리현상이 예견되며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은 원형 심리학을 위한 더 타당한 철학적 틀이라고 말한다.⁴⁾

2) C. G. Jung, 『원형과 무의식』, 이부영 외 옮김, 융 기본 저작집 2 (서울: 솔출판사, 2003), 225-226.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in The Collected Works, vol. 9. part I (New York: Pantheon Books, 1959), 101.

3) 원형 심리학(Archetypal Psychology)이란 용어는 힐만(James Hillman)이 원형과 집단무의식 개념을 중심한 융의 심리학과 이에 기초한 융 이후의 심리학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융의 심리학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한하여 사용하겠다. 논문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사용한다.

4) David Ray Griffin, "Archetypal Psychology and Process Theology: Complementary Postmodern Movements," in Archetypal Process: Self and Divine in Whitehead, Jung, and Hillman, ed. David Ray Griffin (Evanston, Ill: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위 화이트헤드 연구자들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원형의 기원에 대해 과정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그 설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 설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그 설명에서 사용되는 과정철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시도될 것이다. 개념들의 사용이 타당해야 그 개념들을 사용한 설명이 타당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과정철학 내부에서 중요하지만 평소 주목받지 못하던 내용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논문은 먼저 원형의 기원에 대한 융 자신의 설명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과정철학의 관점에서 평가한 후, 원형의 기원을 과정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 원형의 기원에 대한 융의 설명

원형의 기원에 대한 융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원형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형이상학적 문제이므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원형은 정신의 구조로 관찰되는데, 그 것이 차츰 생성된 구조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구조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의 구조란 발견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구조가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⁵⁾ 신체의 구조가 그렇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9), 14-17, 62. 이 책은 1983년 3월 클레어몬트에서 열린 과정사상가와 원형심리학자들의 합동 학술대회에서 발표 및 토론된 내용들을 그리핀이 편집한 것이다.

5) C. G. Jung, 『원형과 무의식』, 이부영 외 옮김, 융 기본 저작집 2 (서울: 솔출판사, 2003), 225-226.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게 형성되도록 조건 지어져 있듯이, 원형은 이미 보편적인 정신의 구조가 되었다.⁶⁾

다른 하나는 비록 거칠지만 어떻게 원형이 형성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과거의 인간들이 오랫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경험들이 유전되어 후세 인간들의 무의식 속에 동일한 원형을 형성한다. 때때로 융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원형의 기원을 인류를 넘어 인류로 진화한 인류 이전 동물들의 반복된 경험들에 게까지 확대한다. 원형은 인류의 동물적 조상들의 인류의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반복된 경험들로 인한 결과이다.⁷⁾ 본 논문은 융 자신이 시도한 이 설명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과거 인류의 동물적 조상들과 인류의 조상들이 수없이 반복한 과거의 경험들이 어떻게 인간들의 무의식 속에 보편적으로 원형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여기가 융이 충분히 일관되고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다. 원형 형성의 메카니즘에 대한 융의 불충분한 설명은 다시 서로 다른 철학적 전제를 암시하는 두 개의 입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오랫동안 반복된 특정 형태의 경험이 인간의 두뇌에 특정 원형을 형성하여 유전된다는 입장이며,⁸⁾ 다른 하나는 반복된 특정 형태의 경험이 인간의 정신에 특정 원형을 형성하여 유전된다는 것이다.⁹⁾

Unconsciousness, 101.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98), 102.

6) 이부영, 『분석심리학』, 102.

7) C. G. Jung,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in The Collected Works, vol. 7 (New York: Pantheon Books, 1953), 96.

8) Jung,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69. "So this [repeated] idea has been stamped on the human brain for aeons. That is why it lies ready to hand in the conscious of every man."

이와 같은 원형 형성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설명에 전제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철학의 타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융의 이론은 경험적 관찰과 사변적 철학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⁰⁾ 따라서 원형 형성에 대한 융의 설명의 타당성은 과학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에서 모두 검토 한다.

첫 번째 설명은 우선 과학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복되는 경험이 두뇌에 각인되어 유전된다는 것은 생명체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내용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오늘날 생물학에서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보고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경험이 두뇌에 새겨져서 원형으로 유전된다는 융의 설명은 생물학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렵다.¹¹⁾ 이와 더불어 그리핀이 잘 지적하듯이, 반복된 경험이 두뇌에 새겨지는 메카니즘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필요한데 융의 설명은 그것을 결여하고 있다.¹²⁾ 포담(M. Fordam)과 스티븐스(A. Stevens)

9) Jung, 『원형과 무의식』, 164.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48. “Endless repetition has engraved these experiences into our psychic constitution...”

10) 융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경험주의자로 규정하고 형이상학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자신이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Jung, 『원형과 무의식』, 196. 융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그의 근본적 가정들을 철저히 재고하는 것이라는 하이지그(James Heisig)의 지적은 옳다. James W. Heisig, *Imago Dei: A Study of CG Jung's Psychology of Religion* (Lewisburg, PA: Bucknell University Press, 1979), 232.

11) 버치(Charles Birch)와 캅(John Cobb)은 그들의 책 『생명의 해방』에서 진화의 전 과정은 우연성과 합목적성을 함께 갖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라마르크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개체가 합목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선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Charles, Birch and John B. Cobb., *The Liberation of Life: From the Cell to the Commun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같은 학자들은 이 관점에서 원형을 설명하고자 계속 노력한다.¹²⁾ 예를 들어 스티븐스는 원형이 DNA 안에 형성되어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는 이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유물론을 전제하면 다른 가능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설명을 실패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전제된 유물론이라고 볼 수 있다. 오직 물질적으로만 원형의 형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설명의 실패는 원형의 기원을 유물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실패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물론에 기초해 정신과 두뇌를 동일하게 보는 심신동일론(identism) 또는 정신을 두뇌의 부수적 현상으로 보는 부수현상론(epiphenomenalism)은 원형의 기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입장들에 의하면 두뇌와 구분되고 분리되는 정신이란 실재는 없으며, 인간의 모든 정신 현상은 두뇌의 작용으로 환원되거나 두뇌에 종속된다. 따라서 원형의 형성은 생물학적으로만 설명되어야 하는데 바로 앞 문단에서 본 것과 같이 생물학은 원형의 형성과 유전을 설명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심신동일론과 부수현상론은 이미 그 자체로 하향인과작용과 진정한 자유의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철학적 입장이기도 하다.

반복된 경험이 정신에 원형을 형성한다는 융의 두 번째 설명은 정신과 물질을 두 실재로 전제하므로 이 설명의 타당성 여부는 우선 그 철학적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집중된다. 정신 속에 있는 원형을 유물론에 입각한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설명의 철학적 기초는 인간의 정신과 두뇌는 존재론적으로 분

12) David Ray Griffin, "Archetypal Psychology and Process Theology: Complementary Postmodern Movements,".

13) Samuels, Jung and Post-Jungians, 37-39.

리될 수 있는 두 실재이며, 그러나 동시에 정신과 두뇌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서, 구분되지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융은 보다 많은 곳에서 이런 입장을 갖는다. 융은 정신을 존재론적으로 두뇌와 구분되는 또 다른 실재로 규정하고, 정신과 두뇌가 모두 에너지로 구성된다고 봄으로써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피해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긍정한다.¹⁴⁾ 그는 “물질을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는 정신, 그리고 반대로 잠재적 정신을 수반한 물질”¹⁵⁾을 긍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물리적 정신적 현상과 관련해서 바로 예정조화설을 주장하지 않으려면, 물리적 정신적 현상은 상호작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원형이 정신 안에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존재론적으로 확보한다. 즉 원형은 두뇌가 아닌 정신 안에 있는 무엇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융의 이 설명이 충분히 타당하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토대와 더불어 정신과 두뇌의 상호작용 메카니즘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인식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반복되는 경험이 인간의 정신에 어떻게 원형을 형성하는지를 인식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제와 관련하여 융의 인식론적 설명은 대단히 부족하다. 융은 원형이 물리적인 신체 조건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정신적 반응의 소산이라고 말한다. 즉 물리적 신체로 경험하는 내용들이 두뇌를 통해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정신 안에 원형이 형성된다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이 설명은 두뇌가 정신에 영향을 주고 정신은 이에 대해 독립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말할 뿐 두뇌와 정신의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은 말하지

14) Jung, 『원형과 무의식』, 98-103. 정신과 물질이 모두 에너지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15) Jung, 『원형과 무의식』, 104.

16) 이부영, 『분석심리학』, 102.

못하고 있다.

또한 앞의 첫 번째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원형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되기 어렵다면, 정신과 두뇌가 구분될 때 원형이 유전되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 속에 형성된 원형이 다음 세대의 정신 속으로 직접 유전 또는 전달되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융은 어떻게 정신 속에 형성된 원형이 다음 세대의 정신 속으로 직접 유전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정신에서 정신으로 정보가 전달된다면 그 사태에 대한 설명도 역시 인식론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융의 인식론적 설명도 찾기 어렵다. 결국 융의 두 번째 설명(반복된 경험이 정신 안에 원형을 형성하여 유전됨)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은 확보되지, 두뇌와 정신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신과 정신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메카니즘이 부족하여 원형의 형성과 유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융의 사상 속에서 굳이 정신과 두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론적 설명을 찾는다면 그의 동시성 이론을 고려할 수 있다. 동시성 이론은 융이 ESP나 염력과 같은 초심리학적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이론이다. 동시성 현상이란 동시에 또는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어떤 주관적인 심리상태와 외부의 객관적인 사건이 서로 인과적 영향이 없지만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¹⁷⁾ 즉 우연히 어떤 심리상태와 어떤 사건이 동시에 또는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데, 서로 아무런 인과 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체에게 우연히 그 둘이 의미 있게 병행될 수 있을 때 그 두 사건을 동시성적 사건이라고 부른다.¹⁸⁾ 융에게 초심리학적 현상들이란 바로 동시성 현상들이다.¹⁹⁾ 예를 들어 ESP 현상을 고려해보자. 나의

17) Jung, 『원형과 무의식』, 376.

18) Jung, 『원형과 무의식』, 376.

마음에 어떤 느낌이 발생했고 마침 그때 멀리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둘이 우연히 일치한 경우에, 실제로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그 사건을 초감각적으로 감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융은 동시성 개념으로 몸과 맘의 관계를 설명할 가능성을 말한다.²⁰⁾ 이부영은 융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동시성은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해명하는데 고려해 볼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정신신체병행론(併行論)에 어떤 해명의 실마리를 던져 줄 것이다.”²¹⁾ 즉 두뇌와 정신의 상호작용을 동시성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ESP 현상을 동시성 현상으로 본다는 것은 정신과 정신의 상호작용도 동시성 현상으로 볼 수 있음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동시성 현상은 두뇌와 정신, 그리고 정신과 정신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인식론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성 현상은 실제로 인과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뇌와 정신의 실제 상호작용과 정신과 정신의 실제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동시성 현상은 원형이 정신 속에 형성되는 것과 또한 다음 세대 정신 속으로 유전되는 것을 설명하는 인식론적 메카니즘이 될 수 없다. 원형의 형성은 과거의 반복된 행위라는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성 이론도 반복된 경험이 정신 속에 원형을 형성하여 유전된다는 융의

19) Jung,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in The Collected Works, vol. 8 (New York: Pantheon Books, 1960), 441. ESP and psychokinesis are “the simultaneous occurrence of a certain psychic state with one or more external events which appear as meaningful parallels to the momentary subjective state – and, in certain cases, vice versa”

20) 이부영, 『분석심리학』, 317.

21) 이부영, 『분석심리학』, 317.

가설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인식론이 되지 못한다.²²⁾

과정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원형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 안에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융 자신의 두 가지 답변이 특히 인식론적으로 충분히 타당하지 못한 핵심적 이유는 융이 여전히 근대적 세계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융은 한편으로 곳곳에서 근대의 유물론과 감각주의적 세계관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통찰들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정신과 두뇌를 두 실재로 보는 것은 유물론과 다른 입장이다. 또한 초심리학적 현상에 주목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도 유물론 및 감각주의 인식론과 다른 방향이다. 그러나 융이 제안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유물론 및 감각주의 토대 위에 계속 서 있다. 즉 융은 유물론과 감각주의를 넘어서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유물론과 감각주의를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다.

유물론과 감각주의에 입각하면 인접한 인과의 사슬을 통하지 않는 상호작용과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는 경험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을 전제한 융은 감각기관을 통하는 인과의 사슬로써 초심리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그 현상을 관찰했다 하더라도 비인과적인 우연한 일치의 결과 즉 동시성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융은 근대적 세계관을 넘어서는 초심리학적 현상들을 근대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근대적 세계관 위에 서 있는 융이 그 틀로 원형의 형성과 유전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

22) 물론 융이 동시성에 기초해 원형의 형성과 유전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융은 동시성 현상이 원형의 작용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정신 속에서는 동시에 또는 미래에 일어날 사실들의 원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형이 어떤 선험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영, 『분석심리학』, 317.

족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윙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과거의 반복된 경험으로 인해 원형이 형성되며 유전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확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존재론적으로 정신은 두뇌와 독립적인 실재이어야 한다. 정신과 두뇌를 동일시하면 원형의 형성과 유전을 생물학적으로만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신과 두뇌가 독립적인 실재가 되어야 원형의 형성과 유전의 가능한 방법을 탐구(探求)할 수 있다. 둘째, 구분되는 정신과 두뇌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신과 정신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그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타당한 인식론의 요청을 의미한다. 셋째, 보다 타당한 인식론이란 인간의 정신과 외부의 사건이 직접 인과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인식론이다. 경험이 물리적인 인과의 사슬과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한 과거의 사건과 정신을 연결하여 원형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유물론과 감각주의를 넘어서 있는 이 인식론은 원형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을 갖지 못한 윙의 입장은 위 첫째 둘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형의 기원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은 윙의 원형이론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3. 원형의 형성에 대한 과정철학적 설명

이제 과정철학의 체계 안에서 윙이 말한 원형의 형성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과정철학의 기본적 틀을 주제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요약해보자. 융이 제안한 원형의 개념은 과정철학에서 영원한 객체(eternal object)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다.²³⁾ 단 융의 주장과 달리 신의 관념과 이미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신에 대한 경험에 기인하는 점은 다르다. 융의 심리학에서 원형이 내용이 없는 순수 형식이듯이,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영원한 객체는 순수 가능태이다. 원형과 영원한 객체는 공통적으로 모두 플라톤의 형식으로부터 원용한 개념들이므로 자연스럽게 유사성을 갖는다.

과정철학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단위는 매 순간 주체적으로 합생하고 만족에 이르는 순간 소멸하는 시공간의 원자적 실체인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이다. 세계는 현실적 존재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인간도 현실적 존재들로 구성된다. 현실적 존재는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되 자기 결정을 통해 실현된다. 인간을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들 중에 주도적인 현실적 존재가 전통적으로 인간의 마음 작용으로 이해되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은 바로 마음으로 이해되는 주도적인 현실적 계기의 합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차원의 작용들이다. 마음으로서의 주도적인 현실적 존재의 합생은 무의식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후기 위상에서 의식이 발생한다. 즉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의식적 경험의 토대 위에 의식적 경험을 갖게 된다.

현실적 존재가 과거를 경험하는 방식은 비감각적 지각이다. 후술

23) John B. Cobb, Jr., "Eternal Objects and Archetypes, Past and Depth: A Response to Stanley Hopper," in *Archetypal Process: Self and Divine in Whitehead, Jung, and Hillman*, ed. David Ray Griffin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9), 126.

하듯이 과정철학이 원형의 형성을 설명할 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감각적 지각 개념이다. 현실적 존재의 합생은 신과 세계를 비감각적 지각을 통해 경험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신이 의도한 영원한 객체들과 세계 속에 있는 영원한 객체들이 마음으로 유입된다. 인간의 마음에는 매순간 영원한 객체들이 들어오고 그 중에 선택된 영원한 객체가 현실태로 실현된다.

이와 같은 과정철학의 틀 안에서 앞 절에서 말한 3가지의 요청되는 전제들이 모두 충족됨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정신과 두뇌는 존재론적으로 구분되고, 양자는 모두 현실적 존재로 구성되어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비감각적 지각의 방식으로 상호작용 한다. 비감각적 지각이란 개념은 근대적 유물론 감각주의와 다르게 감각을 통하지 않으며 반드시 물리적인 인과의 사슬을 통하지 않는 경험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철학에 의하면 과거 오랫동안 반복된 경험들이 이후 인류의 무의식 속에 집단적 원형과 같은 것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다. 인류는 공통적으로 비감각적 지각을 통해 과거의 반복된 사건들 속에서 실현된 영원한 객체들을 강도 높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과거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사건들 속에 실현된 영원한 객체들은 그 이후의 합생하는 인간의 마음에(그리고 두뇌에도) 여건으로 주어져 강력하게 합생 주체를 유혹한다. 그 결과 과거의 반복되는 경험 속에 실현되었던 영원한 객체들이 지금 다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과거의 반복된 경험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 무의식적인 특정 경향성 즉 융이 말한 보편적인 집단무의식 속의 원형이 형성 되는 기본 메카니즘이다.²⁴⁾

24)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 자체가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지 않지만 그렇게

그런데 이 설명이 과정철학 체계 내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려면 현실적 존재의 비감각적 지각 개념이 설명 안에서 타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비감각적 지각의 성격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재조명 한 후 과연 그러한 성격의 비감각적 지각이 어떻게 과거의 반복된 사건들로 하여금 인간의 무의식에 특정 경향성을 형성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자. 특히 파악 이론에 대해 서로 약간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 같으므로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철학에서 비감각적 지각이란 합생하는 현실적 존재가 세계와 신을 경험하는 물리적 파악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과정철학의 틀 안에서 현실적 존재의 파악은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파악으로 나뉘고, 물리적 파악은 다시 순수한 물리적 파악과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으로 나뉜다. 물리적 파악은 현실태를 느끼는 것이고 개념적 파악은 가능태 즉 영원한 객체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주시대의 특성이 아닌) 형이상학적 일반성에 의하면 합생하는 현실적 존재는 인접한(contiguous) 현실태들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접하지 않는 현실태들도 느낀다. 즉 형이상학적 일반성 수준에서 물리적 파악은 인접한 현실태와 인접하지 않은 현실태들도 파악한다고 규정된다.²⁵⁾ 화이트헤드는 인접하지 않은 현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원격작용(action at a distance)”이라고 불렀다.²⁶⁾ 만약 현재의 물리과학이 물리세계의 원격작용을 끝내 부정하더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열어 놓음으로써 경험적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허용한다.

25) PR 307-308. 참고를 위해 관련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hilosophy of organism entirely to deny that there is direct objectification of one occasion in a later occasion which is not contiguous to it.”

26) PR 308.

그것은 이번 우주시대에서 원격작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화이트헤드는 강조한다.²⁷⁾

물리적 파악의 개념을 이해할 때 자칫 ‘물리적’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반드시 물리적인 접촉에 기초하는 물리적인 작용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파악’에서 ‘물리적’이라는 수식어는 ‘개념적 파악’과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가능태를 느끼는 개념적 파악에 대비되어 ‘물리적 차원을 갖는 현실태’를 느끼는 파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된다. 물리적 파악의 본질은 과거 현실태를 순응적으로 느끼는 것, 거꾸로 말하면 과거 현실태가 현재의 합생 주체에게 주는 인과력을 의미한다. 화이트헤드가 구상한 형이상학적 일반성에서 과거 현실태를 순응적으로 느끼는 것 또는 과거 현실태가 현재 합생 주체에게 인과력을 주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접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물리적 매개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주시대에서 물리적 파악과 물리적인 접촉의 관계는 물리적 파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물리적 파악은 여건이 되는 현실태의 물리적 느낌을 느끼는 순수한 물리적 파악과 여건이 되는 현실태의 개념적 느낌을 느끼는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으로 나뉜다. 이때 화이트헤드는 (현재 우주시대에서) 두 종류의 물리적 파악의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²⁸⁾ 순수한 물리적 파악은

27) PR 308. 참고를 위해 관련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Provided that physical science maintains its denial of ‘action at a distance,’ the safer guess is that direct objectification is practically negligible except for contiguous occasions; but that this practical negligibility is a characteristic of the present epoch, without any metaphysical generality.”

28) PR 308. “There is no reason to assimilate the conditions for hybrid prehensions to those for pure physical prehensions.”

인접한 현실태들만을 파악하며 따라서 현재 우주시대의 물리적 법칙들에 제한을 받는다. 즉 순수한 물리적 파악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인과의 사슬을 통해서만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은 인접한 현실태들과 인접하지 않은 현실태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즉 합생하는 주체는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을 통해 인접하지 않은 직전 과거의 현실태들을 여건으로 삼을 수 있다. 합생하는 주체는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을 통해 물리적으로 접촉된 인과의 사슬 없이 (즉 물리적 매개 없이) 인접하지 않은 과거 현실태의 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 있다. 현재 우주시대에는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을 통해 원격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현재 우주시대에서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에 의한 원격작용의 한 예로 텔레파시를 거론한다.²⁹⁾

예를 들어 이번 우주시대에는 순수한 물리적 파악의 방식으로는 A라는 현실적 존재로부터 발생한 어떤 정보가 B라는 현실적 존재에게 빛의 속도 이상으로 전달 될 수 없다. 그러나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은 정신적 정보의 전달로서 이와 같은 물리적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초광속의 정보전달이 긍정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초광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 암시를 충분히 준다고 생각된다. 그의 형이상학적 체계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물리학자 에퍼슨(Michael Epperson)도 화이트헤드 형이상학 안에서 초광속이 가능함을 적극 긍정한다.³⁰⁾

29) PR 308.

30) Michael Epperson, *Quantum Mechanics and the Philosophy of Alfred North Whitehead* (Fordam University Press, 2004), 205-206. 초광속의 정보전달을 화이트헤드 철학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그리핀의 입장은 다음에 잘 요약되어 있다. David Ray Griffin, *Whitehead's Radically Different Postmodern Philosophy: An Argument for Its Contemporary Relevance*

사실 전체 과거 또는 전체 세계가 합생하는 현재의 주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구도는 인접하지 않은 현실태들도 합생의 주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인접한 과거의 현실태는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일반성 수준에서는 순수한 물리적 파악과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 모두를 통해 원격작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 된다고 볼 수 있다. 단 현재 우주시대에서는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만이 원격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주시대에서 순수한 물리적 파악은 극히 약하므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리핀은 현재 우주시대에서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에 기초한 원격작용을 공간적 원격작용과 시간적 원격작용으로 나누고 시간적 원격작용이 원형의 형성을 설명하는 핵심적 메카니즘이라고 말한다.³¹⁾ 공간적 원격작용이란 합생의 주체가 공간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직전의 과거 현실태들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적 원격작용이란 합생의 주체가 시간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과거 즉 직전의 과거가 아닌 먼 과거의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적 원격작용이 허용될 때, 인간의 마음은 순수한 물리적 파악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을 통해 직접적으로 과거의 반복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복된 사건은 여러 통로를 통해 현재의 인간의 마음에 중첩적으로 강화되어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176. David Ray Griffin, ed. *Physics and the Ultimate Significance of Tim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145-146. 한편 그리핀은 화이트헤드가 말한 원격작용에 기초해 ESP나 염력과 같은 초심리학적 현상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David Ray Griffin, *Parapsychology, Philosophy, and Spirituality: A Postmodern Explor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31) Griffin, "Archetypal Psychology and Process Theology," 8.

경험된다. 예를 들어 P라는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사건 A를 경험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A를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현실적 존재들 B, C, D가 있다고 하면, P는 우선 B, C, D의 연속된 사슬을 통해 A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동시에 P는 A를 직접 경험하며, 직접 B를 경험함으로써 B 속에 있는 A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C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A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이때 B, C, D가 거의 A를 반복한 사건일 경우 P는 그 반복된 사건을 대단히 강도 높게 경험할 것이다.³²⁾ 과거의 반복된 사건에 대한 경험은 강화된다. 따라서 과거에 수없이 반복된 사건이 있다면 현재의 합생하는 마음은(그리고 두뇌는) 그 반복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그 사건 속에 구체화된 영원한 객체를 다시 현실화 시키도록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원형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과정철학의 틀 안에서 현실적 존재가 직전의 과거를 경험하는 방법으로 공간적인 원격작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직전의 전체 과거가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인 원격작용을 허용해 오래된 과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과정철학 체계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정철학 안에서 현실적 존재는 만족 즉시 소멸하여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후속되는 현실적 존재 안에 있음으로써 과거는 확고한 사실이 되어 현재 합생의 여건이 된다. 또한 신에 의해 파악되어 결과적 본성 안에 보존된다. 과거는 후속되는 현실적 존재들 안에서 객체적 불멸성을 확

32) Griffin, "Archetypal Psychology and Process Theology," 43. 그리핀은 화이트헤드가 말한 경험의 대개로서의 세계에 대한 예(PR 226)를 시간적 원격작용의 예로 해석하여 사용한다.

보한다.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재』 서문에서 “자기 자신의 살아 있는 직접성을 잃어버린 존재자는 다른 생성의 살아 있는 직접성에 있어서의 실재적 구성요소가 된다”고 말한다.³³⁾ 즉 만족에 도달한 현실적 존재는 이미 다음 현실적 존재의 실재적 구성요소로 사용된다. 레클레어(Ivor Leclerc)는 이 점을 명확히 드러내 소멸한 현실적 존재는 “그 다음 합생하는 현실태들 안에서 ‘요소들’로서 ‘존재한다’...그런 까닭에...‘대상적으로 불멸’한다”고 해설한다.³⁴⁾ 따라서 만일 시간적 원격작용이 (직전 현실적 존재들 안에 있는 과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먼 과거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합생이론과 정합적이지 못할 수 있다. 실재하지 않는 과거가 현실적 존재의 합생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화이트헤드 스스로 말한 존재론적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과거는 직전의 현실적 계기들 안에 가능태로서 존재하며 여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감각적 지각으로 용의 원형 심리학을 설명할 때 시간적 원격작용 개념을 적용하여 먼 과거의 반복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부적절해 보인다. 비감각적 지각으로 원형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과거의 반복된 사건들에 대한 경험이 강하게 축적되어 있는 직전 과거의 현실태들을 경험하면 과거의 반복된

33) PR xiii-xiv. 화이트헤드의 다음 말도 직전 과거 이전의 모든 과거는 가능태로서 불멸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현재의 현실적 존재가 시간적 원격작용으로 직접 경험할 먼 과거의 현실적 존재 자체는 이미 없는 것이다. “초월을 통해 그 개별적 과정은, 달성 가능한 한정성의 보고인 우주의 ‘실재적인 가능태’에 부가되는 새로운 객체적 조건으로서의 불멸성으로 이행하게 된다.” PR 223.

34) 아이보르 레클레어, 『화이트헤드 형이상학 이해의 길잡이』, 안형관·이태호 옮김 (서울: 이문출판사, 2003), 154. 문창욱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현재는 그 직전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 과거의 과거, 그리고 다시 그 과거의 과거를 연쇄적으로 파악한다” 문창욱, 『화이트헤드 철학의 모험』 (서울: 통나무, 2002), 170.

사건들에 대한 경험이 강도 높게 느껴짐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무의식적인 특정 경향성 즉 용이 말한 원형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해야 보다 타당할 것 같다.³⁵⁾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연속된 현실적 계기들 A, B, C, D를 생각해보자. 현재 합생하는 주체 P는 직전의 과거인 D를 파악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C, B, A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B, C가 A와 대단히 유사한 계기라면 P는 D를 통해 A의 요소들을 강도 높게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무의식 속에 특정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적 원격작용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반복된 과거의 사건들을 간접적으로 강도 높게 경험될 수 있는 메카니즘은 가능해 보이며 또한 보다 정합적으로 보인다.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에 의한 공간적 원격작용은 자연히 전제된다. 그럼으로써 인류는 지역적 차이를 넘어서서 과거의 반복된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류는 무의식 속에 공통적인 특정 경향성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용이 말하는 원형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메카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감각적 지각이 이와 같이 이해될 때 이를 이용한 원형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과정철학 체계 내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요약해 보자. 이상의 논의들에 의하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의 틀 안에서 인류는 비감각적 지각 즉 순수한 물리적 파악과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을 통해 먼 과거의 무수히 반복된 사건들을 공통적

35) 화이트헤드는 비감각적 지각의 예로서 기억을 말한다. 그리핀은 기억을 먼 과거를 경험하는 시간적 원격작용의 예로 거론한다. (Griffin, "Archetypal Psychology and Process Theology," 29-30.) 그러나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구성한 현실적 존재들이 지금 존재하여 그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연속되는 현실적 존재들에게 연속적으로 파악되어 직전의 현실적 존재 안에 있는 과거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억이란 비감각적 지각의 예이지 원격작용의 예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으로 강도 높게 경험할 수 있으므로 무의식의 심층에 그에 해당하는 특정 경향성들 즉 원형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과거의 오랫동안 반복된 사건들은 현재의 모든 인간 무의식 속에 강력히 유혹하는 영원한 객체들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모든 인간들은 과거의 무수히 반복된 사건들을 현재에 재생하려는 공통된 무의식적 충동들 즉 보편적인 원형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원형 형성의 구체적 메카니즘을 말하지 못한 융 자신의 설명보다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³⁶⁾

이상은 신을 제외한 원형 현상에 대한 과정철학적 설명이다. 과정철학 안에서 신과 관련된 원형 현상은 다르게 설명된다. 융에 의하면 신의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원형은 자기 원형이다.³⁷⁾ 그러나 과정철학에서 신에 대한 경험은 어떤 영원한 객체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신에 대한 경험이다. 신은 오히려 영원한 객체를 보존하며 매 순간 영원한 객체들을 가치 평가하여 세계의 현실적 존재들에게 최상의 영원한 객체들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적 존재들을 조화롭게 이끈다. 그런데 과정철학 안에서 신에 대한 경험은 융이 말한 원형 현상과 같은 현상을 내포할 수 있다. 모든 현실적 존재는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을 통해 신을 경험한

36) 융 주의자들은 아직 이와 같은 과정철학 진영의 해석과 주장을 적극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형이상학과 경험적 심리학의 만남의 필요성은 비교적 긍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James Hillman, "Back to Beyond: On Cosmology," in *Archetypal Process: Self and Divine in Whitehead, Jung, and Hillman*, ed. David Ray Griffin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9), 215.

37) David M. Wulff, *Psychology of Religion: Classic and Contempora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7), 431. 객관적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융의 입장은 대단히 모호하다. 그러나 신에 대해 융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부영, 『분석심리학』, 355.

다. 거꾸로 말하면 신은 모든 현실적 존재에게 최선의 영원한 객체를 최초의 지향(initial aim)으로 부여한다. 현실적 존재들의 질서적 사회인 인간도 동일한 방식으로 무의식 속에서 항상 신을 경험한다. 신에 대한 의식적 경험은 신에 대한 무의식적 경험이 어떤 계기에 의해 의식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외부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인간의 무의식 속의 어떤 요소(융의 경우 자기 원형)가 신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의 원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실 융 자신도 그럴 가능성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신과 무의식이 구분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말한다.³⁸⁾ 과정철학은 외부의 객관적 신과 인간 무의식 속의 신적 요소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정철학은 융이 말한 신적인 원형을 포용하면서도 그 원형과 객관적 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폭넓은 설명 체계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³⁹⁾

그런데 비록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이 원형의 기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융의 원형 심리학이 과정철학이 예견하는 경험적 현상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거나 또는 마치 원형 심리학이 과정철학을 증명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원형 심리학 자체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며,⁴⁰⁾ 원형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어떤 학자들은 보편적인 원형 개념을 거부한다. 심지어 한 학자는 융이 상담환자의 보고서를 조

38) C. G Jung, Psychology and Religion: West and East, in The Collected Works, vol. 11 (New York: Pantheon Books, 1958), 468. "We cannot tell whether God and the unconscious are two different."

39) 융과 화이트헤드의 종교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Chae-Young Kim, "A Comparison of Alfred North Whitehead's and Carl Gustav Jung's Idea of Religion," Journal of Dharma 27, no. 3 (2002): 417-428.

40) Wulff, Psychology of Religion: Classic and Contemporary, 464-467.

작했다고까지 말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융의 심리학 자체가 형이상학과 신학을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히 경험적인 심리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의 주장이 충분한 경험적 관찰에 의한 것인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만일 융의 심리학에 철학적 요소가 많다면 그 철학적 요소들은 과연 충분히 타당한가를 의심한다. 원형은 어쩌면 과거의 반복된 경험과 관계없는 단순히 본능일지도 모른다. 즉 과거의 반복된 사건들과 연관시키지 않고도 무의식적 경향성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체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융의 원형 심리학이 마치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듯이 평가한다면 그것은 너무 강해 보인다.⁴¹⁾

4. 마치는 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은 융의 원형 심리학에서 말하는 원형의 기원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과정철학적

41) 이 논문에서는 시도되지 않았지만 융의 원형 심리학에 대한 과정철학적 해석이 보다 설득력 있으려면 융이 제시한 대표적인 원형들의 구체적 기능들에 대해서도 과정철학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면 원형은 자신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과정철학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원형들은 종종 병리적 현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병리적 현상이 치유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과정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과정철학이 융의 원형 심리학과 정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원형의 기원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융의 원형 심리학과 과정철학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된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구체적 부분까지를 분석 설명하려는 시도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설명은 원형의 기원에 대해 융 자신의 설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보다 그것을 포섭 보완하면서 확대시킨다. 과정철학과 융의 원형 심리학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두뇌를 구분하지만 동질의 두 실재로 봄으로써 함께 존재론 차원에서 근대적 세계관을 넘어선다. 그러나 감각주의에서 있는 융은 마음과 두뇌 그리고 마음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과정철학은 감각주의 인식론에 없는 비감각적 지각 개념으로 이 부분을 보충하여 원형형성의 메카니즘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정철학이 원형의 기원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융이 말한 집단무의식과 원형이라는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 논쟁이 있으므로 과정철학과 원형 심리학의 관계가 마치 이론과 검증의 관계인 것처럼 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사상은 각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으며 또 서로 배울 수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과정철학에서 평소 잘 드러나지 않던 혼성적인 물리적 파악과 원격작용 개념이 재조명을 받는 것은 큰 수확이다.

참고문헌

- 문창옥. 『화이트헤드철학의 모험』. 서울: 통나무, 2002.
- 레크레이, 아이보르. 『화이트헤드 형이상학 이해의 길잡이』. 안형관·이태호 옮김. 서울: 이문출판사, 2003.
-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98.
- Birch, Charles, and John B. Cobb. *The Liberation of Life: From the Cell to the Commun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Cobb, John B. Jr. "Eternal Objects and Archetypes, Past and Depth: A Response to Stanley Hopper." In *Archetypal Process: Self and Divine in Whitehead, Jung, and Hillman*. Edited by David Ray Griffin.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9.
- Epperson, Michael. *Quantum Mechanics and the Philosophy of Alfred North Whitehead*. Fordam University Press, 2004.
- Griffin, David Ray. "Archetypal Psychology and Process Theology: Complementary Postmodern Movements." In *Archetypal Process: Self and Divine in Whitehead, Jung, and Hillman*. Edited by David Ray Griffin.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9.
- Griffin, David Ray. Ed. *Physics and the Ultimate Significance of Tim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
- Griffin, David Ray. *Parapsychology, Philosophy, and Spirituality: A Postmodern Explor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 Griffin, David Ray. *Whitehead's Radically Different Postmodern Philosophy: An Argument for Its Contemporary Releva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 Heisig, James W. *Imago Dei: A Study of C. G. Jung's Psychology of Religion*. Lewisburg, PA: Bucknell University Press, 1979.
- Hillman, James. "Back to Beyond: On Cosmology." In *Archetypal Process: Self and Divine in Whitehead, Jung, and Hillman*. Edited by David Ray Griffin.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9.
- Jung, C. G. *Psychology and Religion: West and East*. In *The Collected Works*. vol. 11. New York: Pantheon Books, 1958.
- Jung, C. 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In *Collected Works* 9. Part I, C. G. Jung (New York: Pantheon Books, 1959).
- Jung, C. G.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In *The Collected Works*. vol. 8. New York: Pantheon Books, 1960.
- Jung, C. G.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In *The Collected Works*, vol. 7. New York: Pantheon Books, 1953.
- Jung, C. G. 『원형과 무의식』. 이부영 외 옮김. 융 기본 저작집 2. 서울: 솔출판사, 2003.
- Kim, Chae-Young. "A Comparison of Alfred North Whitehead's and Carl Gustav

Jung's Idea of Religion." Journal of Dharma 27, no. 3 (2002): 417-428.
Samuels, Andrew. Jung and Post-Jungia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Whitehead, Alfred North. Process and Reality. Corrected Edition. Edited by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Wulff, David M. Psychology of Religion: Classic and Contempora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7.

[Abstract]

A Process Interpretation of Jung's Archetypal Psychology: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Archetypes

Joo, Jae-Wan (Sun-moon Univ.)

Although C. G. Jung suggested the idea of collective unconscious and archetypes in it which are not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he did not seem to explain adequately enough the mechanism of their formation. Whiteheadian process philosophy seems to provide a more adequate explanation on the mechanism of their formation. It is the concept of physical prehension in process philosophy that plays a crucial role in its explaining how archetypes are formed. In process framework, the past influences the present through physical prehension. Reversely speaking, the present actual entities begin their

concrecence by prehending the past. The numerously repeated events in the past strongly influence the present actual entities, so that the present actual entities are tempted strongly to actualize the eternal objects within the repeated past events. The repeated past events come to form powerful unconscious tendencies universally in people's mind, which are archetypes in collective unconscious in Jung's psychology.

Key-Words: Carl Gustav Jung, The Archetypes,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A. N. Whitehead.

접 수 일 : 2014년 5월 6일

심사기간 : 2014년 5월 13일 ~ 17일

게재확정일 : 2014년 5월 19일